

다문화가정 아동의 품사별 어휘정확도 및 반응속도 특성

Accuracy and Processing Spee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ord Category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저자 (Authors)	오소정, 김영태, 임동선 So Jung Orr, Young Tae Kim, Dong Sun Yim
출처 (Source)	<u>언어치료연구 20(4)</u> , 2011.12, 125-142(18 pages) <u>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0(4)</u> , 2011.12, 125-142(18 pages)
발행처 (Publisher)	<u>한국언어치료학회</u>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KSH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21540
APA Style	오소정, 김영태, 임동선 (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품사별 어휘정확도 및 반응속도 특성. 언어치료연구, 20(4), 125-142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8/27 00: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들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다문화가정 아동의 품사별 어휘정확도 및 반응속도 특성*

오 소 정(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 발달장애아동센터)
김영태(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임동선(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 요 약 >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휘능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전반적인 어휘과제 외에 품사별 어휘 정확도와 반응속도를 함께 비교하였다. 지능이 정상범주인 5~9세의 다문화가정 아동(n=30)과 3개월 이내로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가정 아동(n=30)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어휘 능력과 더불어, E-Prime을 이용한 품사별 정확도와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어휘 능력에서는 표현어휘 정확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품사별 정확도에서는 수용어휘에서는 명사이해 정확도에서, 표현어휘과제에서는 명사와 동사표현 정확도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응속도 비교에서는 전반적인 수용, 표현 어휘 과제의 반응속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품사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의 어휘 능력 차이가 품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며, 반응속도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정확도의 차이가 언어장애 아동들과는 달리 지각-운동 문제보다는 경험 등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검색어〉 다문화가정 아동, 반응속도, 어휘발달 특성, 품사

I. 서 론

최근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통계청, 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연구 초기에는 어머니의 언어와 아버지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이중언어 아동들과 함께 ‘이중언어 아동’으로 불리기도 하였다(박상희, 2006; 박지윤 등, 2008). 하지만 아동의 언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10-327-B00542).

어습득 및 발달은 주양육자의 언어자극 입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Hoff-Ginsberg & Naigles, 2002),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이 중언어 환경이라기보다는 언어자극결핍 위험 환경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지현, 곽금주, 2008; 오소정 등, 2009).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아동의 언어 능력에 대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우현경 등, 2008; 황상심, 정옥란, 2008; 이수정 등, 2008),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중 이해력보다 어휘력이 자녀의 초기 언어발달 수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우현경 등, 2009; 장유경 등, 2007).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위험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다문화언어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1).

사회정책적 관심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표준화검사나 자발화 분석결과에서 어휘 및 의미론적 영역(이수정 등, 2008; 김경미, 2008; 박미단, 2009; 김화수 등, 2009)과 형태구문적 능력(김나영, 2010; 송은주, 2009; 유지현, 2008), 이야기 능력(배소영 등, 2010), 음운인식 및 읽기능력(배소영, 김미배, 2010; 김미자, 2010; 박선영, 2010; 강금화, 2010)에서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언어영역 중 어휘 부분은 다른 언어영역에 비해 초기 언어자극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Hoff-Ginsberg & Naigles, 2002; 박지윤 등, 2007) 다문화가정의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보는데 주요 관심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표준화언어검사를 통한 어휘 능력 뿐만 아니라(오소정 등, 2009; 이수정 등, 2008; 황상심, 2010) 생성이름대기 능력(권수진, 2006)에서도 일반가정 아동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보고되었고,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을 통제하지 않은 일반가정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에서 중산층 일반가정 아동, 저소득층 일반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세 집단의 어휘 능력을 비교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김영란, 2011). 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중산층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서는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이 유의하게 낮았고, 저소득층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도 표현어휘력이 낮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일치한 집단에 비해서도 다문화가정만의 특수한 위험 요인이나 한계 등이 어휘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휘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차이 여부에서 더 나아가 어떤 어휘에서의 능력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권순희(2009)와 윤희원(2008)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개념어나 추상적인 어휘에서 보다 더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선정과 강진숙(2009)에서는 품사별로 어휘이

해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품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낮은 어휘력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을 직접 검사한 연구들이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을 보다 자세히, 품사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 언어발달 연구에서 정확도와 더불어 반응속도는 인지 능력, 전반적인 처리능력을 대변하는 지수(index)로 정상 발달 과정에서 반응속도는 점차 빨라져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정점을 이루고 다시 성인기 이후 점차 느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erella & Hale, 1994). 그래서 언어장애 아동은 전반적인 신경 발달이 정상적인 아동에 비해 언어적, 비언어적 과제에서의 반응속도가 일반 아동에 비해 느린 것으로 연구되었다 (Miller et al., 2001; Winsor & Hwang, 1999). 이러한 언어장애 아동의 느린 반응속도는 전반적인 신경계 성숙 지체(general neuromaturational delay)가 언어장애의 기저라는 가정(Locke, 1994)과 일관된다. Locke(1998)는 전반적인 신경 발달지체로 상당수의 언어장애 아동들이 초기 어휘 발달이 느리고 이 부족한 어휘지식이 언어발달의 분석적 단계인 문법단계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Kohnert와 Winsor(2004)에서는 정상 지능의 언어장애 아동이 낱말 재인과 그림 이름대기에서는 느렸지만, 청각적 어휘판단 과제에서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 이중언어아동은 어휘과제의 정확도와 반응속도 모두에서 일반 아동과 유의한 수행 차이를 보였다. 정상언어능력을 가진 성인이라도 어휘 빈도가 높은 어휘보다는 낮은 빈도의 어휘를 이름대기할 때 더 느린 양상을 보였으며(Johnson et al., 1996), Kail과 Leonard(1986)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느린 반응 속도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과제에서의 전반적 어휘 정확도 뿐만 아니라 품사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 수용 및 표현 어휘과제 수행 정확도와 함께 반응 속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어휘 과제 수행 차이가 어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어휘 종류별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어휘 능력 외에도 품사별로 이해나 표현과제의 수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진단과 중재시에 품사별로 수행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5세~9세의 (1)다문화가정의 자녀 30명과, 3개월 이내로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2) 일반가정 자녀 30명으로 총 60명의

아동들이었다.

두 집단 아동은 모두 부모나 담임교사에 의해 감각적, 인지적, 정서 및 행동적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한국웩슬러아동지능검사(K-WISC-III, 또는 K-WPPSI)의 동작성 지능지수가 85(-1 표준편차)이상인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한국 아버지와 동남아 출신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아동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가정에서 주로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의 지능과 배경정보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대상자 현황

	일반가정 아동(n=30)		다문화가정 아동(n=30)	
성별	남 20명, 여 10명		남 21명, 여 9명	
연령	5세	5명	5세	5명
	6세	5명	6세	4명
	7세	6명	7세	7명
	8세	9명	8세	9명
	9세	5명	9세	5명
월령 평균(표준편차)	90.87(15.80)		90.57(16.33)	
어머니 국적(%)	한국 30 명(100%)		일본	11명(36.67%)
			중국	5명(16.67%)
			필리핀	5명(16.67%)
			베트남	2명(6.67%)
			태국	2명(6.67%)
			몽골	2명(6.67%)
			우즈벡	2명(6.67%)
			페루	1명(3.33%)
			계	30명(100%)
지능 평균(표준편차)	109.96(10.21)		101.14(11.75)	
수용 및 표현어휘력	표현	82.83(17.09)	표현	70.07(16.78)
검사 평균(표준편차)	수용	84.13(17.53)	수용	69.27(18.87)

2. 검사과제

1) 전반적인 어휘 검사

(1) 정확도

두 집단 간 아동들의 전반적 어휘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한 전반적인 어휘 검사는 E-prime ver. 2.0 Professional (Psychology Software

Tools, 2010)을 이용하여 컴퓨터화한 것에만 차이가 있을 뿐 검사 항목과 지시문, 질문은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REVT; 김영태 등, 2009)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상 아동의 연령과 검사에 포함될 품사의 개수를 고려하여, 검사 항목은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REVT; 김영태 등, 2009)에서 수용과 표현 검사의 각 120번까지의 어휘 항목과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는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 전체 어휘 항목의 약 10% 정도의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용사가 어느 정도 포함되면서,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 (REVT; 김영태 등, 2009)의 지침서에 나타난 '최종 어휘 문항의 연령단계별 정답률 분포'를 참고했을 때, 본 연구 대상아동 중 최고령인 9세 아동이 약 50%의 정답률 수준을 보이는 한계점에 해당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이다.

검사에 사용되는 어휘항목과 지시문은 방음시설이 된 녹음 스튜디오에서 20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SONY MD를 이용해 녹음하였고, 이를 Cool Edit Pro(ver. 2; Adobe Systems, 2006)을 이용하여 편집하였다. 녹음시 말속도는 수용어휘 검사 어휘 항목당 1~2초 정도, 표현어휘 유도 질문이나 나머지 지시문은 어절당 1초 정도로 통제하였다.

(2) 반응속도

수용어휘과제의 경우, 보기 문항이 화면에 제시된 후부터 아동이 네 개의 보기 중 하나의 보기를 선택해서 누르기까지의 시간이 수용어휘 반응속도로 자동 측정되도록 하였다. 표현어휘의 경우에는 준비화면인 + 화면에서 검사 질문이 제시된 후 1초 후에 자극 그림이 제시되었으며, 자극 그림이 제시된 후부터 아동의 발화가 시작된 부분까지를 표현어휘 반응속도로 하였다. 아동의 표현어휘과제에서의 반응은 E-prime에서 녹음된 파일을 반응속도측정을 위해 다시 Cool edit으로 불러온 후 과형을 보고 자극 제시 후부터 발화의 파열음이 시작한 시간까지를 연구자가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2) 품사별 어휘 실험 과제

보다 세부적인 어휘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어휘의 120번까지의 동사, 명사, 형용사의 세 품사로 분류하여 품사별 어휘 이해 및 표현 과제를 작성하였다. 품사 분류는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 지침서의 분류를 따랐다. 품사별 어휘수는 표 I.2과 같다.

품사별 반응속도는 명사, 동사, 형용사별로 전반적 어휘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표 II.2>

품사별 어휘수

	표현어휘	수용어휘	계
동사	32	43	75
명사	75	69	144
형용사	13	8	21
계	120	120	240

3. 연구절차

모든 실험은 집이나 방과후교실 등의 익숙한 환경에 실험자가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1차 방문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배경정보 설문지 작성과 동작성 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방문시 실험과제인 어휘검사를 실시하였다.

어휘과제 실시 전에 연구자는 아동을 모니터 앞에 앉게 한 뒤 스탠드형 마이크(Intel PMI 104)를 아동의 입과 10센티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였다. 표현어휘어휘 검사 안내("질문을 잘 듣고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세요")를 모니터 화면에 글씨와 청각적 자극으로 제시한 뒤 3~4개의 연습 문항을 실시하여, 모니터를 보고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연습문항에서 정반응하는 경우 표현어휘 검사를 실시하되 30개씩의 문항을 실시한 뒤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표현어휘 검사가 끝난 뒤 수용어휘 검사도 마찬가지로 지시사항("보기 그림에서 컴퓨터에서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키보드의 번호를 누르세요")을 듣고 연습문항을 3~4문항 실시하여 아동이 키보드 자판 번호를 누르는 것에 익숙해 진 뒤 검사를 진행하였다.

수용어휘의 정확도와 반응시간은 E-Prime에서 자동적으로 기록되었으며, 표현어휘 검사의 정확도는 검사자가 실시간으로 기록한 뒤, 이후 녹음파일을 확인하면서 정오반응을 다시 확인하였다. 표현어휘 반응속도의 측정 및 분석은 Kohnert와 Winsor(2004)의 절차에 따라 자료의 편향성을 제거하였다. 먼저 오반응 문항을 제거한 뒤 정반응문항의 문항별 반응속도를 측정한 다음, 아동별 반응속도의 평균을 구하여 ± 2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가외치(outlier)로 제거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아동별 평균을 내어 ± 2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거하고 아동별 최종 평균 반응속도를 구하였다. 집단별 가외치로 제거된 문항 비율은 약 10%였다.

4. 자료의 통계적 분석

연구 대상 아동들의 전반적인 어휘능력 분석은 SPSS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에 따라 품사별 과제 수행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아동의 전반적인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정확도 및 각 품사별 수행 정확도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살펴보았다.

두 집단 아동의 전반적인 수용 및 표현 어휘와 품사별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다시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집단별 어휘 정확도

1) 전반적인 어휘능력 수행 정확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간에 전반적 수용 및 표현어휘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집단에 따른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정확도 (단위: %)

	일반가정 아동(n=30)	다문화가정 아동(n=30)	t	p
수용어휘 평균 (표준편차)	73.80(10.62)	63.33(14.16)	3.239	.107
표현어휘 평균 (표준편차)	71.28(9.18)	60.44(14.12)	3.524	.004**

** $p<.01$

수용어휘 정확도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어휘 정확도 평균은 73.80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 정확도 평균은 63.33으로 두 집단간 수용어휘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이 3.239($p>.05$)로 수용어휘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정확도 평균은 71.28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정확도 평균 점수는 60.44이며, 두 집단 간 표현어휘점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3.524($p<.01$)로서 집단에 따라 표현어휘 능력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품사별 어휘능력 수행 정확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품사별 수용 및 표현어휘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집단간 품사별 어휘 정확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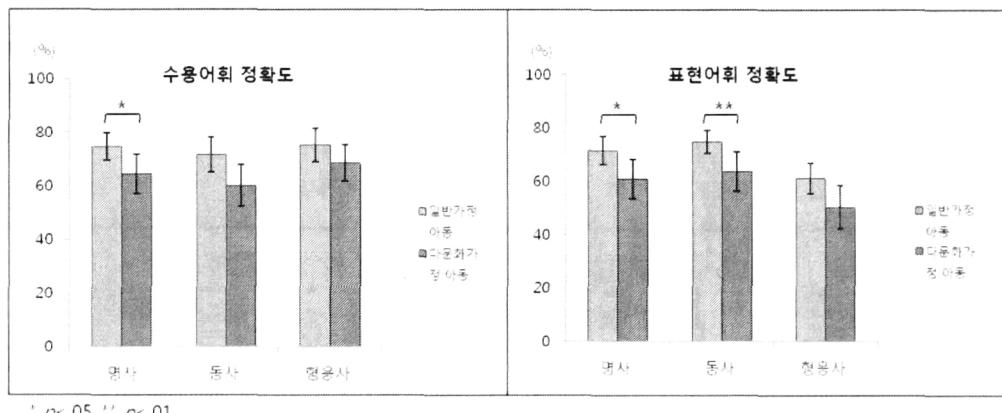
		집단		t	p
		일반가정 아동(n=30)	다문화가정 아동(n=30)		
수용	명사 평균 (표준편차)	74.87(10.23)	64.45(14.78)	3.178	.048*
	동사 평균 (표준편차)	71.63(13.08)	60.16(15.48)	3.097	.259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75.33(12.52)	68.67(13.58)	1.977	.983
표현	명사 평균 (표준편차)	71.62(10.51)	60.94(14.70)	3.235	.013*
	동사 평균 (표준편차)	74.90(8.47)	63.64(14.72)	3.629	.004**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61.19(11.51)	50.48(16.13)	2.961	.056

* $p<.05$, ** $p<.01$

품사별 수용어휘 정확도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아동의 명사어휘 정확도는 74.87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명사 어휘이해 정확도 평균은 64.45이었고, 일반 가정 아동의 동사어휘 이해 정확도 평균은 71.63, 다문화가정 아동의 동사어휘 이해정확도 평균은 60.16이었다. 형용사어휘 이해정확도 평균은 일반 가정 아동이 75.33, 다문화가정 아동은 68.67이었다. 두 집단 간 품사별 어휘 이해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품사는 명사로 t 통계값은 3.178($p<.05$)이었다.

품사별 표현어휘 정확도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아동의 명사 표현어휘 정확도는 71.62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명사 어휘표현 정확도 평균은 60.94였다. 일반 가정 아동의 동사어휘 표현 정확도 평균은 74.90, 다문화가정 아동의 동사어휘 표현정확도 평균은 63.64였다. 형용사어휘 표현정확도 평균은 일반 가정 아동이 61.19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은 50.48였다. 두 집단 간 품사별 어휘 표현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품사는 명사($t = 3.235, p<.05$)와 동사($t = 3.629, p<.01$)였다.

두 집단 간 품사별 어휘과제 정확도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 $p < .05$. ** $p < .01$

<그림 III.1> 품사별 어휘정확도

2. 집단간 어휘과제 반응속도

1) 전반적인 어휘과제 반응속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간에 전반적 수용어휘와 표현어휘과제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집단별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과제 반응 속도 (단위:ms)

	일반가정 아동(n=30)	다문화가정 아동(n=30)	t	p
수용어휘 평균 (표준편차)	3662.95(1130.79)	3894.75(864.02)	-.892	.605
표현어휘 평균 (표준편차)	1442.65(257.27)	1406.49(256.71)	.545	.900

수용어휘 반응속도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어휘 반응속도 평균은 3662.95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 반응속도 평균은 3894.75이다. 두 집단 간 수용어휘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 값은 $-.892(p > .05)$ 로 수용어휘 능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반응속도 평균은 1442.65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반응속도 평균은 1406.49였다. 두 집단 간 표현어휘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 값은 $.545(p > .05)$ 로 표현어휘 능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품사별 어휘과제 반응속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품사별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과제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집단 간 따른 품사별 어휘 과제 반응속도 (단위:ms)

		집단		t	p
		일반가정 아동(n=30)	다문화가정 아동(n=30)		
수용	명사 평균 (표준편차)	3423.59(1058.13)	3782.17(832.32)	-1.459	.489
	동사 평균 (표준편차)	3740.88(1258.88)	3989.27(893.13)	-.881	.645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3975.10(1615.62)	4429.78(1340.87)	-1.186	.862
표현	명사 평균 (표준편차)	1419.20(253.16)	1384.09(258.88)	.531	.887
	동사 평균 (표준편차)	1466.84(264.78)	1448.73(279.13)	.428	.258
	형용사 평균 (표준편차)	1533.90(361.38)	1462.71(330.87)	.796	.390

품사별 어휘이해 반응속도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아동의 명사어휘 반응속도 평균은 3423.59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명사 어휘이해 반응속도 평균은 3782.17이었다. 일반 가정 아동의 동사 어휘 이해 반응속도 평균은 3740.88, 다문화가정 아동의 동사어휘 이해 반응속도 평균은 3989.27이었다. 형용사어휘 이해 반응속도 평균은 일반 가정 아동이 3975.10, 다문화가정 아동은 4429.78이었다. 두 집단 간 품사별 어휘이해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품사는 없었다.

품사별 어휘표현 반응속도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아동의 명사어휘 표현 반응속도 평균은 1419.20, 다문화가정 아동의 명사어휘 표현 반응속도 평균은 1384.09이었고, 일반 가정 아동의 동사어휘 표현 반응속도 평균은 1466.84, 다문화가정 아동의 동사어휘 표현 반응속도 평균은 1448.73이었다. 형용사어휘 표현 반응속도 평균은 일반 가정 아동이 1533.90, 다문화가정 아동은 1462.71이다. 두 집단 간 품사별 어휘 표현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 값을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품사는 없었다.

두 집단 간 품사별 어휘과제 반응속도는 어휘정확도와는 달리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용어휘 반응속도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길었고, 표현어휘 반응속도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짧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어휘과제 수행 정확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품사별 어휘 정확도와 반응속도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어휘정확도에서는 표현어휘 정확도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수용어휘 과제 정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이수정 등, 2008)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전반적인 어휘 표현 능력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낮음을 암시하며, 소득수준을 일치시킨 저소득층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수용어휘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표현어휘 능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보였다는 김영란(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품사별 정확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전반적인 수용어휘정확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명사 수용어휘 정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전반적인 어휘이해 정확도 분석과 개별적인 품사에서의 수행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품사별 표현어휘 정확도에서는 두 집단 간 명사와 동사에서의 수행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동사에서의 표현 정확도 차이는 품사별 수용, 표현어휘 정확도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사 표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던 것은 보기가 제시되었던 수용어휘 과제와는 달리, 표현어휘는 대면 이름대기 과제였기 때문에 명사에 비해 특정성이 낮은 동사 표현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특별히 더 어려움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사가 수용어휘과제와 표현어휘과제 간 차이 없이 일관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반면 동사의 경우에는 이해와 표현 과제 간 집단차이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도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사 이해 목표어휘와 표현 목표어휘가 달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용 및 표현과제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평가나 중재 시에도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특히 동사의 경우 그림을 보고 표현해야 하는 과제에서 특히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름대기 과제는 아니었지만 자발적인 발화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품사별 어휘 표현을 연구한 김효정(2008)에서도 동사에서의 두 집단 차이가 보고되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으로 그림책 이야기하기 과제에서 품사별 서로 다른 낱말의 수를 비교한 결과, 명사, 대명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동사의 서로 다른 낱말수(NDW)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자발적 발화에서 더 어린 3~6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표현을 연구한 박미단(2009)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명사, 조사, 그리고 대명사 사용 빈도수가 SES 일치 일반 아

동에 비해 낮음을 보고하였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을 1~3학년 어휘를 통해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김선정과 강진숙(2009)에서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의 모든 품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낮은 어휘력 수준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특히 부사 등 시각적 참조가 어려운 품사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의 검사항목에는 부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설문지를 통해 안다/모른다를 조사한 연구였기 때문에 직접 아동이 어휘 과제를 수행한 본 연구와는 연구 과제와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결과 차이를 나타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품사별 어휘 수행 차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품사별로 집단 간 차이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평가 및 중재하는 경우 아동의 품사별 수행을 이해와 표현 과제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어휘 과제 반응 속도

반응속도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수용, 표현어휘 과제 및 모든 품사별 분석에서도 두 집단 간 반응속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 언어발달 연구에서 반응속도는 인지 능력, 전반적인 처리능력을 대변하는 지수(index)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Cerella & Hale, 1994), 두 집단 간 정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된 반면, 반응속도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의 정확도의 차이가 언어장애 아동들에서와는 달리 처리능력이나 신경학적인 차이보다는 언어 경험 및 지식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Kohnert et al., 2009; Kohnert & Winsor, 2004).

우리 나라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과제의 전반적, 품사별 반응속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고, 이중언어 아동과 일반 아동, 정상 지능 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과제와 비슷한 대면 이름대기와 낱말 인식을 비교한 Winsor와 Kohnert(2004)에서는, 이름대기와 낱말인식과제에서 단일언어 아동들이 언어장애 아동과 이중언어 아동에 비해 빠른 반응속도를 보였다. 특히 이중언어 아동은 상위 난이도 어휘과제 정확도에서는 언어장애 아동보다 오히려 낮은 수행을 보였고, 반응속도에서도 언어장애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언어경험과 선행 지식이 어휘정확도와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하였다.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과 어휘정확도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달리 반응속도에서 반응속도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정내 언어환경에서 선행연구의 이

중언어 아동과 다른 집단적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ohnert 등(2009)에서는 다양한 인지적 처리과제에서 이중언어아동과 단일 언어 아동의 수행 차이가 과제에 따라 정확도(accuracy)와 반응속도 중 한가지에서만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이름대기와 낱말 인식 과제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 비교할 때 반응속도보다는 정확도가 더 변별적인 측정치임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3개월 이내 생활연령 일치시킨 일반 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품사별 어휘정확도와 반응속도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집단 간 어휘과제 정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된 반면, 반응속도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어휘과제에서 반응속도 보다는 정확도가 이 두 집단 간 차이를 잘 드러내는 요인임을 암시하였다. 전반적 정확도와 품사별 정확도에서, 또 품사를 간에도 집단 차이 양상이 달랐던 점은 임상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어휘 수행 뿐 아니라 품사별 수행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간 지능지수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간의 평균 지능 차이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고(설동훈, 2009), 지능검사 표준화 과정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상언어능력을 가진 아동 또는 성인이라도 어휘 빈도가 높은 어휘보다는 낮은 빈도의 어휘를 이름대기에서 더 느린 양상을 보인다는(Johnson et al., 1996; Winsor & Kohnert, 2004)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어휘 난이도에 따른 집단 간 정확도 및 반응속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 간 반응속도 비교에서 더 나아가, 임상에서 변별적 진단이 필요한 집단들-언어장애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다문화가정 아동과 전형적 발달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아동-간의 반응속도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들 집단 간 변별적 특성 이해와 진단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금화(2010). 5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 능력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2001).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III) 지침서. 서울: 특수교육.

- 권수진(2006).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순희(2009).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 이중언어학회 제 23차 전국 학술대회 발표집, 이중언어학회.
- 김경미(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 및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나영(2009).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특성.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자(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음운인식 및 음운규칙 적용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정, 강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고찰. *이중언어학*, 40, 31-55.
- 김영란(2011).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취학전 아동의 언어특성 및 CAI를 활용한 부모훈련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2009). 수용·표현어휘력 검사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 김화수, 김지해, 권수진(2009). 학년에 따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31-360.
- 김효정(2008). 다문화언어 환경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능력.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단(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상희(2006). 이중언어화된 아동의 조음과 음운패턴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143-152.
- 박선영(2010). 학령기 일본인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읽기를 통한 음운규칙 인식 능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윤(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윤, 박상희, 석동일(2008). 학령전기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학적 특성-형태론적 분석. 언어치료연구, 16(2), 131-145.
- 배소영, 권유진, 진연선, 전홍주, 곽금주(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야기 산출. 언어치료연구, 19(2), 53-72.
- 배소영, 김미배(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 146-156.
- 설동훈(2009). 국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과 교육- 소아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2(4), 403-409.
- 송은주(2010).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 연결어미 이해 및 표현 능력 비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유지현(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문문 이해 발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희원(2009).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학연구*, 34, 5-25.
- 이지연, 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K-BNT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장유경, 홍세희, 이근영(2007). 어휘 습득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양과 상호작용 유형의 영향, *아동학회지*, 28(5), 109-126.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1). 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정순연(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11). 2010 혼인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황상심(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표현어휘 발달과 성차. *언어치료연구*, 19(1), 193-209.
- 황상심, 정옥란(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관련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Adobe Systems (2006). Cool Edit Pro(ver. 2).
- Cerella, J., & Hale, S. (1994). The Rise and Fall in Information-Processing rate over the life span. *Acta Psychologica*, 86, 109-197.
- Hoff-Ginsberg,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in acquiring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Johnson, C., Paivio, A., & Clark, J. (1996). Cognitive Components of Picture Naming, *Psychological Bulletin*, 120, 113-139.
- Kail, R., & Leonard, L. B. (1986). Word-finding Abilities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Monograph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NO. 25.
- Kohnert, K., & Windsor, J. (2004).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Part II. Nonlinguistic Performance by Linguistically Diverse Learn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9, 718-728.
- Kohnert, K., Winsor, J., & Danahy, E. (2009). Primary or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Childr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Brain and Language*, 109, 101-111.
- Locke, J. L. (1994). Gradual Emergence of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608-616.
- Locke, J. L. (1998). Are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s primarily grammatical? In R. Paul

- (Eds.), *Exploring the Speech-Language Connection*. Baltimore, MA: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Psychology Software Tools. (2010). E-Prime ver. 2.0 Professional.
- Miller, C. A., Leonard, L. B., Kail, R. V., Zhang, X., Tomblin, J. B., & Francis, D. J. (2001). Response Time in 14-Year-Olds with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9, 718-728.
- Windsor, J., & Kohnert, K. (2004).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Part I. Lexical Performance by Linguistically Diverse Learn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877-890.
- Winsor, J., & Hwang, M. (1999). Testing the Generalized Slowing Hypothesis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2, 1205-1218.

Abstract

Accuracy and Processing Spee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ord Category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o Jung Oh*(Dept. of Communication Disorders · Children's Center for Developmental Support, Ewha Womans University)

Young Tae Kim** (Dep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Dong Sun Yim*** (Dep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take a closer look at accuracy and response time of vocabulary tasks betwee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Thirty multi-cultural children and CA matched non-multicultural children, who have normal intelligence, attended to computerize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including three word classes (noun, verb, adjectiv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overall accuracy of expressive vocabulary tasks, but not in receptive tasks. Compared to non-multicultural childre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erformed significantly poorer in noun items both receptive and expressive tasks. Verb accuracy, however, was significantly lower only in expressive tasks. None of the analyses of response latency reach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overall tasks and separate word class items, and the roles of perceptual-motor skills and language experience for processing speed observed in response time. Despite partly deteriorated accuracy, multicultural children have comparable processing speed, and this implies that they differ from the language-impaired population.

*오소정(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 발달장애아동센터 연구원

**김영태(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youngtae@ewha.ac.kr)

***임동선(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

▶ 게재신청일 : 2011. 11. 10

▶ 수정제출일 : 2011. 12. 05

▶ 게재확정일 : 2011. 12. 23

Keywords : Accuracy, multicultucal children, response time, vocabulary development, word class